

익산, 홀로그렘 기술개발 순항

1817억원 투입, 5대 핵심기술 개발 진행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마련 · 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의 신성장동력인 '홀로그렘 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된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렘 기술개발 사업'이 순항 중이다.

이번 사업은 홀로그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 가속화 속에서 홀로그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선진국의 기술종속을 피하고 홀로그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817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8년간 5대 핵심기술 개발(1,505억6,000만

원)이 진행된다. 오는 2022년부터는 3대 사업화 실증(312억2,000만원)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5대 핵심기술 개발 공모 사업은 지난해 원광대와 한국조명ICT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고효율 고투명성 대화면 HOE 스크린 기술개발 ▲중대형 공간용 초고해상도 비정형 플렌옵틱 동영상 획득기술 개발 ▲고효율 상용차용 홀로그렘 HUD 재현 기술개발 ▲3차원 정보 기반 홀로그렘 프린팅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홀로그렘 저작도구 기술 개발 ▲광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디지털 HOE 홀로그렘 생성용 저작도구 기술개발 등이다.

이어 시와 전북도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40억 원을 투입해 실증 인프라, 운영체계,

서비스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중 익산 2공단 내에 위치한 한국조명ICT연구원 배광시험소 건물에 헤리티지, 상용차 등의 실증사이트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3대 실증화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홀로그렘은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기술 확보를 통해 신서비스 선도, 시장 창출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돼 행복한 시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울 시장은 "국내 유일의 홀로그렘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익산에서 홀로그렘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홀로그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홀로그렘 기술과 미래차 지 문화유산 복원, 자동차산업 등과 융합된 신산업 확대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내달 1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5부제 판매

출생년도 끝자리로 구매가능 요일 확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산시가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지류 군산사랑상품권을 5부제로 판매한다.

군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로 군산사랑상품권(종이)을 구매할 수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5부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 5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생이면 월요일,

2·7생이면 화요일, 3·8생이면 수요일, 4·9생이면 목요일, 5·0생이면 금요일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와, 매월 초 상품권 구매 고객의 금융기관 일시 방문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종전과 같이 10%

할인 판매하며 개인별 월 70만원(종이·모바일 포함)한도 내에서 구입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 가능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은행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가급적 종이상품권보다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과 군산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소방서, 체계적 관리로 대형화재 막는다

심의회에서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 59개소 선정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대형화재의 사전예방·대비를 위한 선제적 소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를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이나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사용하는 대상으로서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심의회는 19일 익산소방서 2층 방호구조과 연합회의실에서 위원장인 방호구조과장 및 관할 센터장 등 10여명의 소방공무원, 외부위원인 장영철 소방기술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심의 결과 총 59곳(공장 23, 의료시설 8, 노유자 8, 복합건축물 5곳 등)을

2021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은 향후 안전대책,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 시기별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정욱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중점관리대상은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려했다"며 "향후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각 부서별 관계자들이 종합해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이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신속한 복구대책과 지원을 약속했다.

"농작물 한파 신속한 피해복구 약속"

정현울 시장, 농가 방문

정현울 익산시장이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신속한 복구대책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현울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은 19일 지속된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통산동의 2곳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농작물 한파 피해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저기온이 -17.9℃ ~ -11.1℃까지 내려가는 갑작스런 기상이 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지역의 농작물 피해 현황은 34

농가, 11.5ha로 방울토마토, 감자, 아욱, 상추, 콜라비, 백향과 등이 동해 피해로 접수됐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한파 피해조사를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현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감소와 가격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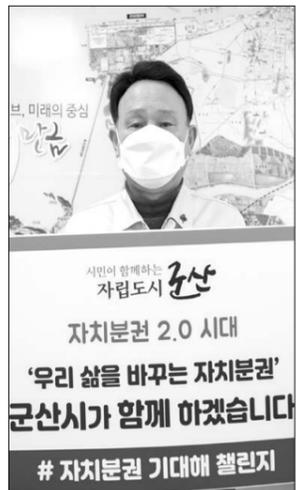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8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고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손팻말에 작성해 사진촬영 후 소속기관 또는 개인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챌린지에 참여했다"며 "자치분권 2.0 시대는 진정한 시민중심 지방자치의 개막이며, 앞으로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25일부터 22건 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2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35회 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2월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동환·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이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마다 시민의 다양성과 창의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시정의 저임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방자치의 신 원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들은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추진되는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원별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경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사업 추진시 목표수치를 적게 잡아 100% 이상 달성이라는 수치상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목표 자체를 현실성 있는 수치로 세우 거기에 맞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김용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열린시민교양강좌 등 강좌들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도서관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문화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